정부, 자치단체 통합 당근과 채찍

무안반도 자율통합땐 1조 혜택

특별교부세 4천억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2014년 강제 통합땐 공무원 축소 등 불이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조기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시한부 맞춤형 혜택제공을 약속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치단체의 자율 통합을 전폭 지원하되 정부 방침 시한인 2014년까지 미루다 강제통합될 경우 공무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당근과 채찍'의 병행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통합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목포와 무안, 신안 등이 통합시가 될 경우 산술적으로 1조원이 넘는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될 것으로 보여 '무안반도'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운현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2일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백 차관보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이석우 시장을 만나 행안부의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설명한 뒤 "2014년까지 강제 통합되면 혜택이 없고 공무원도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내년초 10개 통합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서둘러 통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목포와 무안, 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중앙정부가 어떤 혜택을 줄지 관심이다.

실제 백 차관은 지난 1일 목포를 방문해 3개 시·군 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이 무안반도 통합적기로 자율 통합되면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달 말까지 통합건의를 받아 11월 중에 주민투표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시·군 별로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10년간 4천억원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 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시 우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예산 우선 배정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공공 문화체육시설 우선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시(市)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미만이더라도 일반구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10년간 공무원 현 정원 체제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 통합시(市)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보는 또 "정부가 2014년에는 법률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번 기회에 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목포와 무안, 신안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위원회'는 행안부에 시·군·구 통합을 건의키로 사실상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행안부의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건의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5년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움직임은 주민 투표 3번, 여론조사 3번을 했지만, 무안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청와대 개편 참모진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달 31일 개편된 참모진이 참석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U대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교육네트워크 결성 市-교육기관 협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의 견인차가 될 외국어 자원봉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네트워크가 결성됐다.

광주시는 2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개설을 뼈대로 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글로벌인재양성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는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광주교대, 광주영어방송 등 외국어교육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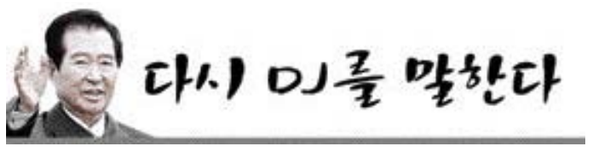
광주시는 영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한편, U대회 핵심요원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2015U대회의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복안이다.

이들 기관은 올 연말부터 자체적으로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을 개설해 주로 중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상 영어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이들 교육기관은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원어민 교사 채용 등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기초-심화-최고급 과정 등 3단계로 이뤄지며 교육장소도 학교, 대학 언어교육원 등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우수자는 2011년 심천U대회, 2013년 카잔U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눈물도 웃음도 많은 소탈한 성품 40년간 비서진에 반말 한번 안해"



❺ '리틀 DJ' 한화갑 前 민주당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2일 DJ와 함께 했던 지난 40여년을 회고하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조금씩 떨렸다.

지난 1967년 7대 총선에서 DJ의 선거 운동원을 자청, 정치적 인연을 맺은 한 전 대표는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3차례나 옥살이를 하는 등 DJ와 함께 가시밭길을 걸었다.

한 전 대표는 14대 국회에 등원, 내리 4선을 지내면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새천년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등을 거치며 DJ의 대통령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그는 40여년 동안 DJ의 그림자로 활동하면서 동교동계를 대표하고 정치적 지향점과 연설하는 모습마저 DJ와 닮아 '리틀 DJ'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우선 "김 전 대통령이 지난 4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비서진에 반말을 한 적이 없었다"며 "항상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등 품위가 있었으며 이는 우리들에게 늘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눈물과 웃음이 많은 소탈한 사람이었다"며 "손자들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함께 한다거나 주위의 딱한 사연에 종종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감옥에 끌려갔다 나오면 김 전 대통령은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참고 견디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거리셨다"며 "또, 웅담 등을 나눠주시며 '빨리 건강을 회복해라'고 당부하셨던 일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참 힘들고 많이 고생했던 시절이었지만 민주화와 DJ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던 그때가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한 전 대표는 "DJ는 옥중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오열하고 당시 회유에 나섰던 군사정권 인사에게 '날 죽여라. 광주시민과 같이 죽겠다'고 하셨다"며 "이는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67년 7대 총선때 선거 운동원 자청 정치적 인연
"DJ는 제 인생의 전부…다시 태어나도 모실 것"

2005년 당시 한화갑(왼쪽) 민주당 대표가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DJ와 호남과의 관계와 대해 한 전 대표는 "DJ는 늘 '나는 고향을 잘 타고났다'고 말씀하셨다"며 "또, '고향 때문에 박해 받기도 하지만 호남은 늘 나를 성찰하게 하고 호남의 지지는 나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 한 전 대표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경제난 해결 방안을 놓고 잠을 못 이루고 많은 고심을 하셨다"며 "당시 내가 대통령께 'IMF는 하늘이 내려준 과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평적 정권 교체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호남민들이 어깨를 펴고 살았다"며 "당시 호남이 고향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서로 호남 출신이라고 나서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동서화합과 관련, 한 전 대표는 "지역차별의 피해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정권 출범과 함께 영남 출신의 김중권씨를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개각 등에서도 영호남의 균형을 적극 배려했었다"며 "DJ는 호남 역차별 지적에 대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호남의 지지에 대한 보은'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DJ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남북화해과 관련, 한 전 대표는 "독재 정권과 극우세력으로부터 '빨갱이'라는 색깔론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햇볕정책을 토대로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과정을 회상해보면 정말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다시 태어나도 DJ를 모시겠다는 한 전 대표는 "DJ를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고단했었지만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길이였으며 함께 해서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며 "DJ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진영의 통합과 정권 창출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